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공정한 사회. 누구나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궁금한 건, 공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가이다. 이 강연에서는 특정 집단의 공정을 앞세운 ‘보수화’ 현상을 좀 더 들여다보려 한다. 그들의 저항과 불만의 저변에 깔린 일종의 심리적 토대가 무엇 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여, 기존 공정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개념화되지 못한 이들의 지향점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그들의 모습이 왜 보수화로 치닫 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주요 논의내용

- 공정을 앞세운 보수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 공정하다는 인식과 협력
- 호혜성과 공정의 조건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처럼 다른 사람도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조건부로 협조적’ 또는 ‘호혜적’이라고 한다. 이들은 타인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타인이 협력하려 하지 않을 때 이를 징계하거나 자신의 협력을 철회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때때로 어떠한 형태로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강한 호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최정규

경제학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제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의 진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가 있고, 옮긴 책으로 『승자의 저주』 등이 있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성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협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무조건적인 협조적 태도나 이타적 성향만으로는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협조적 태도가 조건부적이라면 협력하려는 이들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무임승차자에게는 협력적 태도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임승차자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집단 내 협력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하게 된다. 호혜적인 이들의 존재는 사회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무임승차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강한 호혜성에 대한 몇 가지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강한 호혜성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동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협력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생면부지의 상대와도 할 수 있다. 동물과 달리 인간 사회에서 혈연 범위를 넘어 협력이 확장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호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협력적 성향이 실제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타인도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강한 호혜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믿음이 없으면 협력을 철회한다. 이들은 협력적 상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협력을 철회하는 이중성을 갖는다. 이들은 협력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협력을 철회하기 때문에 협력의 쇠퇴를 이끄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다.

호혜성이 협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타인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한 호혜성이 갖는 어두운 측면을 말해준다. 강한 호혜성을 갖는 이들은 내부인에게 협력적인 반면 외부인에 대해서는 협력적 성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때때로 강한 호혜성은 다른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혐오나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혐오와 배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와 '남'의 구분이 편견과 곡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기준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면서 배척과 혐오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정에 대한 강한 지향이 특정 지역, 여성,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혐오로 드러나는 까닭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할지 몰라도, 내가 사회에 혹은 집단에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협력하는 전제조건으로 공정함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공정은 반칙이 없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이라는 지향에는 호혜성과 응분이라는 감정적 토대가 있다. 공정은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협력적 체계를 확신하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구성원들이 협력적 기획에 참여할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한 참여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타인도 나와 다를 바 없으며 내가 그러한 것처럼 타인도 사회의 협력적 기획에 가까이 참여할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럴 수 있도록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없애 주는 것, 그것이 협력적 사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일시
2022년 4월 4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